

# 無言의 몸짓으로 살아난 경허 선사 일대기

### 경허, 동국대 이해랑극장서 연극 '경허' 공연

‘忽聞人語無鼻孔/頓覺三天我家/六月燕岩山下路/野人無事太平歌’(돌연 귀가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삼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아인은 태평기를 부른다.)

현대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허 스님(1849~1912)의 오도송이다. 처사의 “고삐 풀을 구멍이 없다”는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경허 스님은 정말 삼천세계가 내 집인 듯 살아갔다. 밖으로는 문동이고 역병 환자도 끌어안았으며, 안으로는 한국불교의 수행과 사상을 융숭 깊게 만들었다.

성과 속의 경계에 묶이지 않았던 경허 스님의 무애행은 입과 글로 끊임없이 전해질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소재이다. 이 같은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무언의 몸짓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사)경허연구소(소장 흥현지)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연극 '경허-Empty Mirror'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퍼포머(Performer, 무대예술가) 강만홍 서울예대 연기와 교수가 원작과 연출, 주연까지 맡았다. 이는 2008년 뉴욕 맨하탄 라마다 극장에서 상연해 격찬을 받았던 '길 없는 길'(The Pathless Path)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며, 강 교수의 3년만에 창작신작이라 의미를 더한다.

### 퍼포머 강만홍, 연출·주연 맡아

### 4월 20일~5월 1일 2주간 상연

### 2008년 '길 없는 길'서 업그레이드

강 교수가 연출한 연극 '경허'는 '세미 언버빌 퍼포먼스' 형식을 가진다. 대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만으로 경허 스님의 특별한 일대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극은 △깨달음의 문 △깨우침 △꿈결인 가 △바람 등으로 구성된다. '깨달음의 문'과 '깨우침'에서는 “고삐 풀을 구멍이 없는 소”라는 한마디에 오도하는 과정을 그린다. '꿈결인가'에서는 경허



연극 '경허-Empty Mirror'의 이미지. 공연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스님의 무애행과 일생을 표현한 총 9개의 몸짓 마당이 펼쳐진다.

공연 기획사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양한 음악과 미장센들을 가지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 하려 한다”면서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과 퍼포먼스가 일품으로 90여분의 공연시간동안 지루할 틈 없이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극은 주연인 강 교수 외에도 이란 아, 김지애, 민우기, 박민수, 윤희경, 양

승일, 고은결, 서봉원, 조백한, 김도연, 정민호, 조주현, 강민정, 홍지인, 고성현 등이 참여하며, 성용 스님이 나레이션을 맡는다.

연극을 주최한 경허연구소는 “경허 선사는 빈 거울의 틀을 깨고 그 속에서 대자유의 춤을 추는 보살의 현신이었다”면서 “이번 공연은 그러한 큰 스승 경허, 그 님을 공연 예술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070)4829-7245 신성민 기자

## 영산재 · 오케스트라 '만남' 장엄하네

### 니르바나 필, 17일 KBS홀서 불교음악페스티벌

### 禪詩에 곡 붙인 '천년의 향기'부터 가곡·아리아·합창 등 공연 다채

### '범패 · 오케스트라 교향시' 발표도 "동서양 크로스오버 美 발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만나는 공연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다.

불교계 유일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 필)는 4월 17일 오후 5시 KBS홀에서 부처님오신날 불국 음악회인 '불교음악페스티벌(BUDDHA'S BIRTHDAY MUSIC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신작 찬불가와 봄의 아름다움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무대로 마련된다.

오프닝으로 명화사 소년소녀합창단 · 동국대 힐링코러스 · 일산 여래사 북타합창단 ·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등 4개 단체의 180여 명의 합창단과

소프라노 정을 스님, 정행 스님, 이정화, 박선영, 테너 이동원, 바리톤 김재일 등이 출연한다.

특히 수와 합현 스님(前 봉암사, 관음사 주지)의 선시에 곡을 붙인 신작곡과 전통예불의 예술성을 극대화시켜 바리톤 김재일과 합창단의 음성으로 들어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산재와 오케스트라가 만난다.

영산재 이수자 현성 스님을 범주로 10명의 스님들과 함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초연하는 '범패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김진우 작곡)가 공연되고, 연합합창단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 단장은 “세계적인 무대종합예술로서 많은 호응과 초청을 받는 영산재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화 하는 본격적인 초연무대”라면서 “서양음악과 불교음악의 정통성의 결합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서양의 크로스오버 미학이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2157-077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선묵으로 만나는 '해피붓다 포대화상'

### 범주 스님 '해피붓다'展

### 4월 19일까지 한국미술관서

### 포대화상·달마·비천관음도 등

### 힐링 메시지 담은 작품 선보



범주 스님의 해피붓다 포대화상 병풍 중 일부.

천관음도도 주목할 만하다. 선묵으로 그려진 관세음보살 주위로 표현된 황금색으로 아련하게 펼쳐진 장엄함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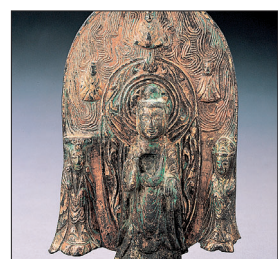
또한 산수만행과 달마를 주제로 한 천년선화, 선묵화, 선화도자기를 비롯해 한지등 공예가 원만행과의 합작품 선화한지등, 전통 선묵연구회원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출품·전시되는 것들만 200여 점에 달한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범주 스님은 “언론 등을 통해 한국이 자살률, 암발생률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았다. 문제의 근본은 마음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다. 불교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힐링'과 '웃음'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이번 전시회의 인연으로 웃음의 묘약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건강이 좋아져 괴로운 삶에서 현실극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범주 스님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 간 같은 주제로 대통령 별정 청남대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054)535-0378 신성민 기자

## 불교미술 속 '세 가지 보배'를 만나다

### 호암미술관, 오는 11월 6일까지 불교미술전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금동신묘명삼존불(고구려, 571년, 국보 85호)

한국불교 미술 속에 담긴 삼보(佛, 佛)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은 4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국불교미술의 특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세 가지 보배: 한국의 불교 미술(Three Jewels: Buddhist Art of Korea)'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삼보에 맞춰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인 '부처의 세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를 비롯해 아미타 신앙과 관련한 다양한 불

교 유물이 전시된다.

2부 '부처의 가르침'에 전시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사경과 변상도,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 조선시대의 언해본 불경은 이웃나라와는 다른 한국불교의 기록 문화를 잘 보여준다.

3부 '구도의 길'에는 범종과 반자와 같은 범용구, 향완이나 합쳐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양구를 통해 불보살계 예배와 공양을 드리던 승려들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031)310-1801-2 신성민 기자

## 사찰서 찾아보는 왕실 문양들

### 회암사지박물관, '춘풍문양' 주제 전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회암사지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경기도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양 중 꽃문양을 테마로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춘풍문양(春風文樣)'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왕실 사찰이었던 양주 회암사지의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전시에서는 왕실에만 사용했던 중국 청화백자 편(片)과 고려

청자 편(片), 도자로 제작된 예가 적은 분청사기향완, 소조사천왕상의 장식을 비롯해 연꽃과 열매문양, 범자 문양 등이 소개된다. 문양 소개 외에 문양을 채색해 볼 수 있는 특별 팸플릿도 발간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회암사지 난간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왕실문양은 송유역 불에도 불교, 조선 왕실의 후원이 작고 짙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031)8082-4187 신성민 기자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동반  
**마하연 여행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on.com

# 성지순례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곳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일 [양곤-비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비간-만달레이-헤호-펜타이아]  
미얀마 7일 (3대 성지)  
[양곤-비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일 양곤-비간-헤호

### 남방불교의진수 인도/스리랑카 하늘과맛있는 불교성지 티베트/부탄내팔

부탄순례지 NO경유! 인천→네팔,부탄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루비나-스라바스티-산키시야-아그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렌-담불라-시리리아-플로너와-알루비하라-켄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제-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동티베트 9일  
성도-문전-마얼강-오명불학원-야징스-관당

티베트 6일  
성도-라싸-암드록초-관계-시가체

부탄/네팔 8일

## 대한/라오스/베트남 캄보디아

대만5일 대만3대 사찰순례  
대만/홍콩5일 홍콩(2)-대만(2)-화론태국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라오스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6일 하롱베이-씨엠림

- 마하연투어만의 특전 -  
1.직영운용으로 마진을 뺀 가격  
2.오랜경험으로 현지불교행사 진행  
3.호텔-행사-식사(타사비교 필)

### 4대불산 중국 [China]

990,000원부터~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6일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정도/국부/태산6일(웨이크루즈)